



한진해운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정은보(왼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날 31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한진해운 기업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터넷파크 회원정보 2666만건 유출”

지난 5월 해킹사고 조사결과 발표... 해커, 지인 사칭 직원PC에 악성코드 감염 후 DB서버 접속

“지난 5월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파크’ 해킹사고로 ID 등 회원정보 2665만8753건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정찰총국으로 추정되는 해커는 지인을 사칭해 악성코드가 첨부된 e 메일을 인터넷파크 직원에 보내 개인 PC를 감염시킨 후 이를 매개로 인터넷파크 DB서버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3일~6일 발생한 인터넷파크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와 관련, 이같은 민간 합동조사단(조사단) 조사결과를 지난날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병행해 사고 대응,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침해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이뤄졌다. 조사단은 지난날 25일부터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고 관련 자료 37종(67B)을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해 해킹 방법과 절차 등을 확

인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APT(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해커는 스피어피싱(spear phishing) 기법을 활용해 직원PC에 악성코드를 최초로 감염시켰다. 이 기법은 지인으로 위장해 ID와 패스워드 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는 일종의 피싱 공격이다.

이후 해당 직원 PC를 경유해 파일공유서버에 접속해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패스워드 대입공격을 하면서 내부 정보를 수집해 DB서버 접근이 가능한 개인정보취급자 PC에어권을 획득했다. 이후 DB서버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외부로 몰래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메일을 통한 내부망 최초 감염과 감염확산, 정보수집, 개인정보취급자PC와 DB접기, 개인정보 탈취와 유출 등 해킹절차가 5월3일부터 5월5

일 3일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해커는 패스워드 관리 및 서버 접근통제 관리 등 취약점을 악용해 인터넷파크 회원정보 2665만8753건이 보관된 파일을 16개로 분할하고 직원PC를 경유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회원정보는 2665만8753건이다. 회원 분류별로 인터넷파크 일반회원의 경우 ID,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회원정보 1094만7544건이 유출됐다. 제휴사 일반회원은 ID 245만4348건이, 탈퇴회원은 ID 173만4816건이, 휴면회원은 ID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1152만2045건이 넘어갔다.

조사단 관계자는 “2665만8753건은 유출된 회원정보 건수 기준이다. 방통위가 중복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어 인구 기준으로 몇명의 개인정보

가 유출됐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미래부는 인터넷파크 대상으로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 및 개선사항 공유 등 보안강화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방통위는 침해사고 인지 후 인터넷파크에서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를 확인하고 해당 피해사실 및 이용자 조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날 28일 인터넷파크 해킹사건은 북한 정찰총국 소행인 것으로 판단한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사용된 IP주소 ▲악성코드의 유사성 ▲협박 메일에 쓰인 문체 등을 근거로 들었다. /뉴시스

‘파인’ 통해 금융정보를 한눈에

오늘부터 통합 제공... 매주 ‘금융꿀팁 200선’ 게시도

실생활에 유익한 금융정보를 한 곳에 모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가 개설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은행·보험·증권 등 각 금융권과 감독원이 각각 제공하던 금융정보를 ‘파인(http://fine.fss.or.kr)’으로 통합 제공한다고 지난날 31일 밝혔다.

금융상품과 금융거래, 금융꿀팁은 물론 금융피해 예방·구제, 서민중소기업지원, 금융회사, 기업정보, 금융통계, 금융교육 등을 다룬다.

현재 판매 중인 금융상품의 금리, 수수료, 가입조건 등 비교 및 검색이 가능하고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 휴면계좌내역, 카드 포인트 잔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기존의 ‘금융상품 한눈에’, ‘연금지속 통합공시’, ‘보편다모아’, ‘ISA다모아’, ‘페이인포(자동이체 통합관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도 한번에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 실생활에 유익한 실용 금융정보를 200가지 선정해 매주 게재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연급어드바이저’를 제공한다. 연금 수령정보, 예상 퇴직연령 등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노후대비 자금을 진단하고 투자성향 등을 분석해 적합한 연금지속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 동의를 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금융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뉴시스

‘위성항법 위치정보’ 민간에 무료개방

정부가 위성신호를 민간에 무료 개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성항법 상시관측소(위성기준점)의 위성항법(GNSS) 원천 정보인 위성신호를 5일부터 무료로 개방한다고 지난날 31일 밝혔다.

GNSS는 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이며, GPS(미국), GLONASS(러시아), Galileo(유럽연합), BeiDou(중국) 등이 있다.

위성항법 상시관측소는 1995년부터

전국에 60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그간 기준점·토목시공측량, 지도제작, 지각변동·기상연구 등의 측량 및 연구 분야에서 주로 활용됐다.

위성항법 상시관측소에서 수신하는 위성신호의 원천정보는 국가·지자체·공사·대학·연구원 등 공공 및 연구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됐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스마트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신성장 산업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산업은행, 대우조선에 5.3억달러 특혜 지원”

박용진 의원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통해 용도 맞지 않게 부당대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2014~2015년 두 차례에 걸쳐 5억3000만달러(약 5922억원)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31일 산업은행이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제도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5억3000만달러를 대출해줬는데 이는 특혜성 대출이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이 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외평기금 외화대출을 통해 2014년 9월29일과 2015년 2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에 각각 3억 달러, 2억3000만 달러 등 총 5억3000만 달러를 대출해줬다.

이는 산업은행이 외평기금 외화대출을 통해 대출을 승인한 66건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전체 산은 배정액인 22억5000억달러의 23.5%에 달한다.

정점은 외평기금 외화대출 용도에 부합하느냐다. 박 의원은 산은이 이 외화대출제도를 이용해 대우조선해양에 대출해주면서 ‘목적 외 사용’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 ▲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수입재구매자금(운전자금) 등 3가지 용도에만 이 대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산은은 대출금액을 용도에 맞게 썼는지 실수요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입재구매 운영자금 아닌 일반운영자금으로 대출해줬다.

실수요증빙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산업은행은 “은행의 기업체 운영자금 지원은 회사가 대출 직전에 기존 보

유자금으로 지출한 내역도 포함해 실수요 증빙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일반운영자금으로 대출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선박에 설치되는 기자재수입을 감안해 일반으로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실수요증빙이 관행상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상관없이 영수증만 맞추면 된다는 것이냐”며 “반드시 수입재구매자금으로만 써야 하는데 산업은행이 부당·특혜대출을 위해 합법을 가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금융을 특정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기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며 “정문회에서 부당·특혜 대출 경위와 사유를 밝혀내고 부도덕의 싹을 잘라내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추석 앞두고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

추석을 앞두고 돈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날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월평균 122억원으로 전기(146억원) 대비 16.5% 감소했으나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85억원으로 6개월 전(78억원)보다 9.0% 증가했다.

특히 8월 들어 대출해주겠다며 접근한 사기범이 판을 쳤다. 피해액은 131억원으로 급증했고 피해자수도 2404명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

사기범들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게

하고 상황 명목으로 대출금을 가로챘다.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수법도 여전했다.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은 경우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피해를 입으면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원 관계자는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